|  |
| --- |
| **1. 주제 (10점)**  (e.g. 비대면/무인화 상점을 위한 OO 플랫폼 구상 및 OO 앱 개발 제안)  캡쳐방지 워터마크 삽입 어플 개발  **분반, 팀, 학번, 이름**  가반 4팀 남채린 |

|  |  |
| --- | --- |
| **2. 요약 (10점)**  저작자가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도용을 원치 않는 사진에 '캡쳐방지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다. 이 어플은, 정보량이 많아진 22세기에서 온라인 속을 물 흐르듯 떠다니는 미디어의 이동 중 사용자가 원치 않는 자료의 도용을 쉽게 막음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층 강화시킨다. | **3. 대표 그림 (1개 이상, 10점)**  개발 배경 / 그림 1.  예상결과 / 그림 2.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

\* 표지 없이 1(주제), 2(요약), 3(대표 그림), 6번(결론) 합하여 1장 이내

|  |
| --- |
| **4. 서론 (1장 이내)**  중학생 때 연예인 덕질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연예인 덕질의 문화를 접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의 도용의 심각성을 크게 느꼈다. 제작자가 아닌 제 삼자가 제작물을 올릴려면 출처언급이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나마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은 크게 유명하지 않아서 누가 본인이 제작한 자료인 것마냥 글을 올리면 해당 제작자가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유명한 연예인을 덕질한다면 자료들이 떠다녀도 출처가 불분명해져서 저작권이 보호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의 제작물이 주체 못 하게 떠다닌다면 의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제작자들이 줄어들어서 자료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제작자들을 위한 도용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예인 덕질 말고, 셀카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 자료도 마찬가지로 도용 방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도용 방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도용 방지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도용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캡쳐방지 워터마크'라는 장치를 개발하고 싶다. 사진이나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캡쳐를 할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대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통해 저작자가 원하면 자료의 이동도 가능하게끔 설정할 수 있다. |

|  |
| --- |
| **5. 본론 (1장 이내)**  - 시스템 개요 그림 1개 이상 (10점)  **- 필요한 기술 요소 설명 (10점)**  - 구현 방법 및 개발 방향 (10점) |

|  |
| --- |
| **6. 결론**  - 보고 내용 요약  - 향후 할일 정리 |

\* 7번 출처 제외 총 3장 이내 (파란색 글은 삭제 할 것), 기한 내에 제출 할 것 (10점)

**7. 출처**

[1] 허균, 임꺽정, “홍길동의 얼굴 분석,” 한국OOO논문지, 제5권, 제6호, pp. 1-10, 2006.